

“여성 대상 범죄 불안 해소” vs “역차별 논란 일 듯”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여성 전용 택시’ 도입

서울시가 내달 중 여성 전용 택시를 도입한다. 여성들은 “늦은 밤에도 마음 편히 택시를 탈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남성들은 “또 여성 전용이나.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서울 시내에서 여성 전용 택시 ‘웨이고 레이디’가 운행된다. 손님과 운전자 모두 여성인 택시로 남성 승객은 탈 수 없다. 웨이고 레이디는 시범 운영 기간인 3개월간 20대 규모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직장인 임모(여·29) 씨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갈 때 버스가 끊기면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운전자가 여성이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놓일 것 같다”며 “요새 흉흉한 사건이 많아 밤에 택시타기가 무서웠는데 이런 서비스가 생겨서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여성들은 ‘웨이고 레이디’ 서비스를 반기는 입장이다. 최근 여성 택시 이용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1일에는 택시기사가 술에 취

웨이고레이디, 20대 서비스 시작 2020년까지 500대로 확대 예정 추가 비용 있어 ‘역차별’ 주장도

한 여성 승객을 선유도공원으로 끌고 가 흥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10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한 그는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전용 택시의 공급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모(여·27) 씨는 “서울 전역에 택시가 몇 대인데 20대 밖에 운행 안 하나”며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제 여성은 안전에도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서울에 등록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 앞에서 이진아 씨와 딸 김민아 어린이가 여성전용 택시 ‘웨이고 레이디’를 탑승하고 있다. 여성전용 예약제 콜택시 ‘웨이고 레이디’는 국내 최초로 영, 유아용 카시트도 제공하며, 손님도 운전자도 모두 여성이다. 단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탑승 가능하다. /연합뉴스

택시는 총 7만1829대이며, 운전자 수는 8만475명이다. 시는 2020년까지 ‘웨이고 레이디’를 500대로, 여성 운전자를 1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여성 전용 택시는 전체의 약 0.69%를, 웨이고 레이디 운전자는 1.25%를 차지하게 된다.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웨이고 레이디 택시 운송가맹사업자

인 타고솔루션즈 관계자는 “승객 수요가 많다면 여성 전용 택시를 500대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 전용택시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윤모(32) 씨는 “여자만 탈 수 있는 택시 자체가 역차별이다”면서 “진정한 남녀평등을 원한다면 여성 전용은 그만 만들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 전용 택시가 생기는 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며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7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성 전용 콜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여성 택시 운전자를 모집하지 못해

해당 사업을 접어야 했다.

타고솔루션즈 관계자는 “웨이고 레이디는 월급제와 100%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성운전자 모집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본다”며 “사납금을 맞춰야 하는 부담도 없고 길가에서 손님을 태우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어 지원자 모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음식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소규모 사업장 최대 1000만원까지

서울시는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 세탁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시는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 악취배출시설이 없지만 주택가와 인접한 위치에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넘지



건물옥상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전기집진기). /서울시

않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16년부터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 35곳에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에 대한 주민 체감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복합악취는 63%, 먼지는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지원

차량 축 4개 이상 20t車로 대상 확대

서울시는 졸음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7년 7월 18일 이후 총 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차량 축이 4개 이상인 차량 등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차로 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

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 센서로 이탈 여부를 감지한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같은 방향의 앞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 예상 시간 전에 경고를 하는 ‘전방충돌 경고장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시에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대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총 22억7000만원을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데 지원한다.

시는 장치 비용(장착 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한다.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단, 차량 총중량이 20t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 중 덩크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DMZ 내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제안

출입사무소 수속절차 문제 등 해결 관광상품 연계해 경제효과도 창출

남북평화의 전진기지인 경기도가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에 발맞춰 DMZ내 ‘(가칭)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독일의 ‘베를린 장벽 해체’처럼 남북 평화의 역사적 상징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북한으로 이동하려면 남측과 북측 출입사무소에서 각각 수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통합 출입사무소(CIQ) 기능을 하는 남북 국제평화역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의선 철도로 북측으로 가려면 남측의 도라산역에 정차해 세관검사, 출입국관리, 검역 등의 수속절차를 밟은 뒤 6.8km 떨어진 북측 관문역에서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시간상 4시간 정도 걸린다. 하지만 DMZ 내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남북 국제평화역이 지어지면 이용객은 남북 심사관이 공동 진행하는 수속절차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도는 남북 국제평화역이 생기면 절반



인 2시간 만에 수속절차가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개통한 홍콩~중국 고속열차가 지나가는 홍콩 카우룽역이 비슷한 사례다. 홍콩 심사관과 파견 나온 중국 심사관은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수속절차를 공동 진행해 시간을 줄이고 있다.

이밖에 도는 역내에서 면세점과 남북한 맛집, 특산물 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

하고, 주변 DMZ 관광상품과 연계해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남북 국제평화역이 남북 분단과 대치의 공간인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바꾸고 소외된 경기 북부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kimsy@

“주행거리 줄이고 포인트 받아주세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모집

서울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거리에 따라 최대 7

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 7만1000명을 모집한다. 오는 2021년까지 해마다 5만대씩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7년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한 5만1247대 중 절반에 가까운 2만3436대가 주행 거리를 1억9000km 단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 자동차 주행거리가 전국적으로 2.8%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만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자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차량 번호판과 최초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